

끝까지 싸우라!

끈적끈적한 죄를 이기는 방법

한 청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목사님, 제가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청년의 목소리는 무척 낙심돼 있었다. "왜 그래? 무슨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죄를 이기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어요. 그런데 번번이 넘어져요. 저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목소리에 깊은 실패감과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같은 죄에 오랫동안 반복해서 넘어지면 깊은 실패감에 빠진다. 이것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사람이라면 다 경험하는 것이다. 나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수없이 경험했다. 이 말을 듣는데 안타까움이 올라왔다. 이것은 결코 복음의 가르침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다(마 1:21). 그것은 죽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죄에서 건지신다는 뜻이다. 나는 낙심해 있는 청년에게 힘주어 대답했다. "그럼, 당연히 이길 수 있어! 성경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롬 6:14)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기게 하기 때문에 너는 이길 수 있어." 치명적인 덧인 악을 피하고 예수님께 지켜달라고 말하세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은 내가 죄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다. 죄 가운데서 일어나려 했지만 죄가 너무 강해서 깊은 낙심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주셨다. '죄가 너를 이길 수 없다. 너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이다. 은혜는 죄를 능가한다. 네가 너를 묶고 있는 죄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결코 죄가 너를 주장할 수 없다. 진리를 믿어라. 성도는 진리로 싸우는 것이다.' 나는 말씀에 용기를 얻어 나를 묶고 있는 죄에게 선포했다. "뉘!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나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능가해. 나를 붙잡고 있는 죄야, 나를 뉘! 너는 나를 붙잡을 수 없어!" 진리를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자 정말 죄가 끊어졌다. 그리고 자유해졌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 평생 죄와 싸운다.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고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고 한다. "목사님도 아직 정욕이 있으신가요?" 아마 성자같이 훌륭한 목사님이고 연로하시니까 그런 죄에서 자유해지셨을 거라는 생각으로 질문한 것 같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한다. "있지요. 아직도 내게 정욕의 죄가 있어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나는 이 일화를 듣고 마음 깊이 간직했다. '죄와 끝까지 싸워야 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죄를 이기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죄에서 해방하여 거룩한 길을 걷게 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질 자'이다. 그런데 죄에서 건지신다는 것은 '칭의'만 의미하는 게 아니다.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에서 건지신다는 것이다.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 지금 죄를 이기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 쉬운 싸움은 아니다. 우리 육신에 배어있는 죄는 일생 끈적끈적하게 우리를 유혹한다. 해결된 듯하면 다시 고개를 쳐든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 죄를 이겨 나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

-강대형의 "파이터: 복음을 위해 싸우는 자" 중에서-



창립 1974년 11월 3일

주보 제 44권 30호 2018년 7월 29일

* 표는 일어섬 (Standing if you can) 사회: 박태열 목사

경배와 찬양 (Praise)

* 시작기도 (Opening Prayer) 다같이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같이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이건형 장로

교회소식 (Announcements) 사회자

봉헌 (Offering) 71장 (새찬50장) 다같이

* 봉헌송 (Offering Hymn) 1장 다같이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박태열 목사

성경봉독 (Scripture) 마가복음 12:29-31 다같이

성가대 찬양 (Choir Anthem) 예함찬양대

설교 (Sermon) 박태열 목사

첫 사랑을 회복하세요

여섯번째: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파송찬양 (Closing Hymn) 93장 (새찬93장)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박태열 목사

[예배안내]

주일대예배 / 11am

주일학교 / 11am

중고등부예배 / 11am

[주중예배/모임]

새벽예배 / 5:30am(화-토)

Acts29 기도 / 6am(주일)

수요예배 / 8pm

속회 / 매달 1회 셋째주

성인성경공부 / 1pm(매달 둘째, 넷째주일)

한국학교 / 3pm-6pm(토)

[다음주일 대표기도]

서병일 권사

교회 / 교우 소식

오늘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교회벤 구입을 위한 특별헌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헌금봉투에 "교회벤 구입"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매달 첫째주 토요일 새벽예배**는 남선교회 주관으로 드려집니다. 새벽예배 후 간단한 아침식사 준비됩니다.
- ◆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 ◆ **이번주 수요일예배**에 연석윤 집사님 미얀마 선교보고가 있습니다.
- ◆ **보드웍 전도**가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YWAM에서 함께 참여합니다. 참여하실 분은 친교후에 간단한 교육있습니다.
- ◆ **담임목사님 기도집회 인도:** 박태열 목사님께서 7월 31일(화) 저녁 7시에 Woodbury에 위치한 Kemble Memorial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기도집회를 인도합니다.
- ◆ **추계 말씀성회**가 9월 21일(금), 22일(토), 23일(일) 고세진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 ◆ 친교는 조동숙 집사님께서, 제단헌화는 연선희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부서별 소식

[남선교회]

8월 5일(일) 친교후에 낚시를 갑니다. 가실 분들은 간단한 복장 준비해 오시고 낚시대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목회협조위원회]

담임목사님께서 8월 11일(토) 부터 18일(토)까지 휴가를 떠나십니다.

[교우/교역자 소식]

- ◆ **박태익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 **천춘옥 권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 ◆ **김옥재 성도님** 백내장 수술 받으셨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후원]

- ◆ 파송선교사 가정인 문열림 선교사, 주은혜 선교사 (기쁨, 거룩)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문열림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 ◆ 협력선교사 가정인 김희기 선교사, 박경선 선교사 (진서, 진후)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김희기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중보기도요청]

- ◆ **찬양사역자, 성가대 반주자, Youth 전도사, Children 전도사**를 보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원할수 있도록 제정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교회벤 구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중모임/행사

7월 29일(일) 2:00pm 보드웍전도

8월 5일(일) 1:00pm 남선교회 낚시 클럽

[남부뉴저지 감리교회 사랑의 법]

1. 교회에서는 절대로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다. 위반시에는 자진해서 선교헌금 \$100을 낸다.
2. 교회에서는 친하다고해서 또는 나이가 어리다고해서 반말을 쓰거나 말을 함부러 하지 않는다. 항상 직분을 부르거나 성도님이란 호칭을 사용한다. 위반시에는 자진해서 선교헌금 \$100을 낸다.
3. 교회에서는 남을 지적하는 말, 남을 헐뜯는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위반시에는 자진해서 선교헌금 \$100을 낸다.
4. 교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언성을 높이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다. 위반시에는 자진해서 선교헌금 \$1,000을 낸다.

지난주 일 통계

헌금총액	\$2,649	출석총인원	41
십일조	\$1,625	KM 본예배	37
주정(주일)	\$340	주일학교	4
감사헌금	\$130		
선교헌금	\$50		
주일학교	\$4		
교회벤구입	\$500		

새가족 등록절차 안내

- ◆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 ◆ **새가족 등록과정:** 새가족 교육 (4주)과정을 마치시고 담임목사의 심방을 받으시면 속회에 배정이 되시고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십니다.
- ◆ **새가족 교육일정:** 교회소식란에 교육일정을 공지합니다.
- ◆ **새가족 환영식:**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그 다음주일 본 예배시 환영식을 갖습니다.

8월 친교/헌화

5	최미경집사 / 이미경권사
12	최영숙권사 / 조동남권사
19	윤여옥집사 / 장경숙집사
26	윤여옥집사 / 서낙선권사

교회를 섬기시는 이

담임목사:	박태열
교육협동목사:	박태익
지휘자:	연석윤 반주자:
시무장로:	최종인 이건형
원로장로:	이우인
파송선교사:	문열림 주은혜 (기쁨, 거룩)
협력선교사:	김희기 박경선 (진서, 진후)